

2024 충남다원예술 · 사회적가치특화
· 예술교류 간접지원과정

빈칸 실험실 기록집

충남문화재단



1. 여는 글	
/ 비워둔 곳에서 만나다 <빈칸 실험실>	6
2. 사업 구성 및 특징 / 비워두고 시작하기	12
사업 소개	
운영적 구조 및 특성	
3. 세부 내용 / 채우면서 남겨두기	18
오리엔테이션	
활동강화 과정	
다원예술 분야 1:1 인터뷰	
개별 심화연구	
체험 및 탐방	
성과연구 예술인 좌담회	
과정 나눔회	
4. 참여예술인 사업 소개 / 창작이 채우는 시간	66
다원예술	
사회적가치특화	
예술교류	
5. 참여자 소감 / 남겨진 것에서 시작하기	112

1. 여는 글

비워둔 곳에서 만나다 <빈칸 실험실>

최선영

간접지원과정 PM, 문화예술기획자

3년 차에 빈칸으로 시작하기

보통의 사업은 3년 차가 되면 더욱 완성형의 계획을 세우곤 한다. 2년 동안 드러난 구멍을 분석하고 그것을 채울 구체적인 조각을 찾는다. 그리고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설계한다. 그렇게 사업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3년이나 5년 단위로 시도되곤 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충남문화관광재단의 간접지원과정도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과정을 함께한 필자는 오히려 2024년에 빈칸을 실험하기로 했다. 작년 간접지원 과정이 끝날 때만 해도 2024년에는 무엇을 더 보완하고 채워 넣을지에 집중했지만 고요한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창작에 시동을 걸 때가 되니 다른 질문이 생겼다. 간접지원 과정은 기획이나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이나 기회를 지원사업 안에서 제공하려는 목적이 컸는데 그래서 더욱 새로운 정보, 동향, 방식, 환경을 꺼내어 펼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여러 예술가들에게 공감과 긍정적 반응을 얻기는 했으나 계속 새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생각이 들었다. 그 전제에는 특히 예술가들에게 '뭐라도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고 제안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 간접지원과정 안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을 보낸 후 더욱 확인하게 된 것은 예술가들마다의 창작 동기와 방식, 현재의 욕구나 관심사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지원과정 첫해에도 발견했던 내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매우 큰 특징이자 주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가들은 무엇이 지원, 제공되든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다. 해석 자체에 더욱 흥미를 갖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 주제나 경험에 대한 예술가마다의 넓은 해석의 자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빈칸’을 실험하고자 했다. 이전보다 내용을 덜 계획하고 사업별 간접지원과정 운영 횟수도 줄였다.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흐름이 만들어낸 관계

하지만 2022, 2023년의 간접지원과정이 치열하고도 촘촘하게 운영되었기에 2024년에는 ‘빈칸 실험실’을 시도할 수 있었다. 어떤 방식이 더 옳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시도 안에서 어떤 흐름이 생기거나 그런 흐름을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선택도 누군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3년 동안 간접지원과정이 지속될 수 있었기에 그것

이 가능했다. 한편으로는 충남에서 예술이나 기획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정이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간접지원과정에 담아내려다 보니 매년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재단은 예술가들에게 사업 추진 예산을 분배하는 직접 지원 외에 어떤 방향성과 내용,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지 간접지원과정을 통해 현장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재단 실무자가 예술가들을 간접지원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실무자는 개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예술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요즘은 어떤 실험을 하는지, 비공식적인 활동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다. 그것은 지원기관과 지원대상의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예술을 매개로 서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서 요즘의 질문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은 예술가라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경험이다.

독특하고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여러 기관에서 기획, 운영되는 요즘, 그 다양성과 차별성 속에서 어떤 관계가 얼마나 가능해졌는지, 혹은 더 어려워졌는지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비워둔 곳에서 계속 만나기

‘빈칸’은 예술가들의 자기 해석의 범위 외에 총남에 서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을 의미했다. 누군가의 해석에도 사람 간의 만남에도 사전에 기획된 내용보다 그 순간에 촉발되는 무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자리로서 ‘빈칸’이 필요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덜 기획하고 더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 각자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지만 발견과 질문의 기회는 필요하니 그 자리를 남겨두자는 의미였다. 그래서 공통과정으로 기획한 강의나 워크숍 등에서도 완결된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질문이나 개별화된 참여를 유도했다. 체험·탐방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빈칸 투어>라는 이름으로 넓은 바닷가를 걷거나 공연을 즐겼다. 사람은 하나의 경험에서 각기 다른 무언가를 느낄 것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타인과의 대화나 교류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필자는 3년 간의 간접지원과정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발견했다. 그것은 매우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나 교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창작물을 한 번 더 들여다봐 주는 존재,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존재, 현재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 비언어적으로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존

재가 지원사업이라는 딱딱한 구조 안에서도 필요했다. 그래서 1:1 인터뷰 시간이나 예술장돌뱅이와의 워크숍 등에서 예술가들은 더욱 많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가 예술가인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민인지도 함께 털어 놓았다.

이러한 순간이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서 중요하다면 그것이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한데 필자는 그 자리를 역시나 ‘빈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확한 무대가 아니라 남겨진 이야기, 느린 이야기, 정리될 수 없는 이야기가 잠잠하지만 솔직하게 이어질 수 있는 자리로서 덜 무대 같은 빈자리가 필요하다. 아직 무대를 짓기 전의 공터, 혹은 무대 뒤 분주한 준비 공간처럼 말이다. 비워둔 곳에서 계속 자신과 타인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은 분명 다음 무대를 구체적으로 꿈꾸게 할 것이다.

누군가 바쁘게 무대를 끝내고 내려온 자리에서 성공담이나 개선 사항을 나눌 수도 있지만 무대 주변 사람들이 각자 무엇을 상상하거나 망설이고 있는지 나눌 수도 있다. 그 목소리가 수근거림으로만 묻히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다음 간접지원과정에서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제각각 퍼져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따금 무대 위 누군가의 떨림을 향해서도 큰 응원이 될 것이다.

<빈칸 실험실> 사업 소개

2. 사업 구성 및 특징

비워두고 시작하기

사업 기간 2024년 1월 ~ 12월 (사업 공모·정산 기간 포함)

사업 목표

1) 기초 순수예술 창작지원 외에 문화 분권 가속화와 전환의 시기 대응차원에서 충남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 확장을 위해 예술인 의견청취회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한 2024 예술지원 사업 고도화

2) 기존 다원예술·예술교류지원에 대한 사업 취지 부합도 재평가 및 동시대 현안에 대한 예술의 사회적 실천 주제 신규 사업 편성을 통해 변화하는 예술정책을 반영한 예술지원 체계 개편

3) 보조금 간접 지원을 넘어 역량 강화, 교류 협력,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등 사업 고도화를 위한 간접 지원 과정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예술 활동의 지속과 확장 도모

사업 규모 충남다원예술지원 10인

사회적가치특화지원 5인

충남예술교류지원 5인

사업 흐름



추진 일정

사업명	워크숍 (OT형)	1:1 인터뷰	활동강화 교육		체험·탐방형 활동 강화 교육	개별 심화 연구	성과 연구 예술인 좌담회	과정 나눔회
			강의	워크숍				
추진 시기	5월	6-7월	6-7월		9월	7-10월	11월	12월
충남다원 예술지원	1회	10회	2회	2회	1회 (충남권)	5회	1회	1회
사회적가치 특화지원	1회							
충남예술 교류지원		협력 교류	1회					
	거점 교류							

지원 내용 간접 지원(역량강화·사업 고도화 과정)
+ 직접 지원(공모를 통한 보조금 교부)

충남다원예술지원

지원 대상 2024 충남다원예술지원 공모 선정 예술인(개인)

지원 규모 10명

사업 내용

- 1)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지원에서 벗어나, 형식이나 조건의 제약 없이 실험적 시도가 살아 있는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 2)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예술 장르 간 융복합, 기존 예술장르에 속하지 않는 탈장르·복합장르·비주류 및 독립예술 등 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사회적가치특화지원

지원 대상 2024 사회적가치특화지원 공모 선정 예술인
(개인/팀)

지원 규모 5명

사업 내용

충남의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공익의 가치를 높이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기획 및 활동을 지원한다. (문학, 시각,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등 전 분야)

충남예술교류지원

지원 대상 2024 충남예술교류지원 공모 선정 예술인
(개인) 및 공간

지원 규모 5명

사업 내용

- 1) 협력교류지원(무형의 거점 확대) : 예술창작교류, 예술인 역량 강화·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의 예술 교류를 확산한다.
- 2) 거점교류지원(유형의 거점 확대) : 도내 문화예술 활용 가능 공간 개발 및 거점 간 교류를 통한 공간 인큐베이팅 등 유형의 거점 교류를 추진한다.

3. 세부 내용

채우면서 남겨두기

오리엔테이션 “나에게도 사건을”

- 일시** 2024. 5. 21. 다원예술
2024. 5. 22. 사회적가치특화 · 예술교류
- 장소** 천안시 가든파티
- 내용** 간접지원 과정에 대한 전반적 소개 및 질의응답
- 진행** 최선영 PM





“예술가 스스로의 선택이 각자에게 사건을 만든다.
그 선택은 많은 것을 계획하거나 시도하는 것일 때도 있고
비워두고 상상하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일 때도 있다”



활동강화 과정

가. 오픈형 강의 (1)

일시 2024. 6. 13.

장소 천안시 신불당 아트센터

내용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예술가의 판짚 그리고 기획

진행 최선영 PM





“예술가의 판집이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전공 혹은 전문 분야 외에 예술가의 판집이 갖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해보자”

나. 오픈형 강의 (2)

일시 2024. 6. 16.

장소 천안시 신불당 아트센터

내용 공공 예술 지원 제도의 변화를 통해 보는
예술의 현재성

진행 성연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지원사업의 역사와 변화 속에서 예술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익숙한 제도의 이름 속에서 예술가의 현재 질문을 찾아보자”



다. 참여형 워크숍 (1)

일시 2024. 7. 3.

장소 천안시 신불당 아트센터

내용 짧은 스토리와 다양한 촉감 오브제로
나에게 끌리는 무언가 만들기

진행 구은정 예술가





“집에 돌아오니 내가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낯선 질문 앞에 여러 오브제들이 있다. 각자의 현재 관심사에 따라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만들어본다”

라. 참여형 워크숍 (2)

일시 2024. 7. 17.

장소 천안시 신불당 아트센터

내용 타지역 예술가와 1:1로 만나

무형의 가치 교환하기

진행 예술단체 '예술장돌뱅이'





“다른 예술가들과 마주 앉아 나에 대해 혹은 느껴지는 것에 대해 나눈다.
결국 사람과 사람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만난다”



다원예술 분야 1:1 인터뷰

일시 2024. 6. 17. - 7. 10.

(참여 희망 예술인별 각 1회, 총 10회)

장소 예술인별 창작공간

내용 창작 과정에서의 고민을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하여 예술인이 자기 언어의 객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 마련 (PM과의 1:1 인터뷰 후 녹취록을 공유 및 편집/보완)

진행 최선영 PM, 이려진 시각예술가









“혼자 창작, 기획, 기록 등을 해내야 하는 예술인의 경우 개인의 고민을 타인과 언어적으로 공유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나에게 중요한 요소나 개념이 타인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지 나의 언어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개별 심화연구

일시 2024. 9. 10. - 10. 31. (신청 예술인별 각 1회, 총 5회)

장소 예술인별 창작공간 또는 모임공간

내용 예술인이 창작 과정의 의미를 주변 예술인, 관계자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현재의 질문과 고민을 확장



<예술인 대상 개별 심화연구 소개 및 신청 안내>

* “개별 심화연구”는 희망자에 한해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1. 의도 : 나의 창작이나 실험의 과정을 공유하고 누군가의 작업도 궁금해 해보자

2. 내용

- 이번 사업 관련 작업의 과정이나 일부를 다른 예술인들에게 공유
- 완성형, 발표형, 행사형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험을 해보고 있는지 중간 과정을 나누는 자리
- 예를 들어, 요즘 실험 중인 사운드 및 합주 작업의 일부 순간을 공유. 또는 작업실이나 연습실로 예술인들을 초대하여 작업에 대한 대화나누기. 시민들과 함께 할 워크숍을 예술인들과 소규모로 해보기 등등



“예술가라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
창작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그 질문을 나누는 방식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다”

체험 및 탐방

복많투어

일시 2024. 9. 25.

장소 서산시 카페 '크라운파머스'
홍성군 남당노을전망대

내용 빈칸이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술인들이 각자의 영감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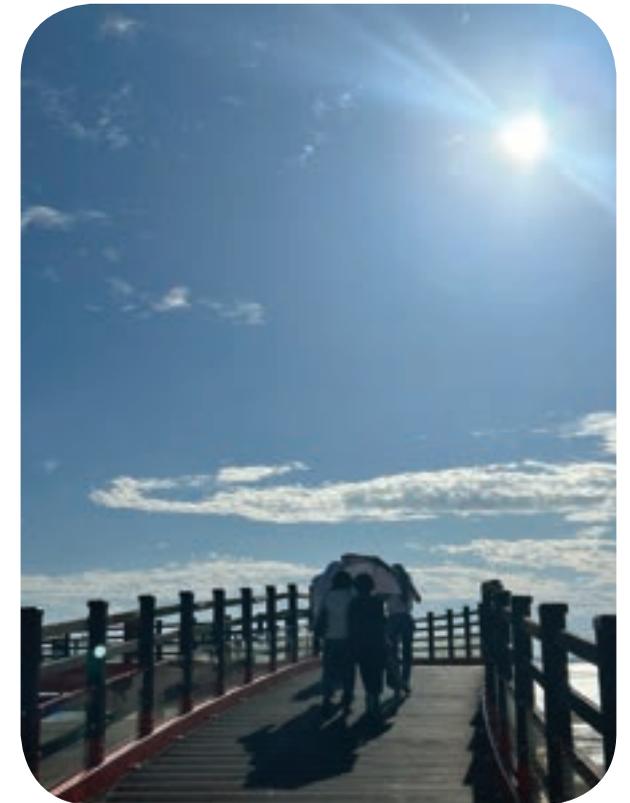
시간	일정
09:30 - 09:40	출석 체크
09:40 - 10:40	식당으로 이동
10:40 - 11:30	식사
11:30 - 12:15	크라운파머스로 이동
12:15 - 12:40	크라운파머스 도착 및 휴식
12:40 - 13:20	'트리플'의 공연 (가야금+플루트+탭댄스)
13:20 - 13:25	휴식
13:25 - 14:00	'김민희 Trio'의 공연 (건반+기타+보컬)
14:00 - 15:20	예술가의 그림모임, 재미로 보는 주역점
15:20 - 15:40	남당노을전망대로 출발
15:40 - 16:30	바닷가 자유 산책
16:30 - 18:20	천안으로 출발
18:20 - 18:30	마무리 후 해산







“빈칸이 넘치는 여행에 음악, 그림, 대화 그리고 자연이 함께 한다.
느낀 것을 말로 정리해서 발표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삶과 창작의
영역에서 조금씩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충분하다”



성과연구 예술인 좌담회

일시 2024. 11. 13. (총 1회)

장소 천안시 카페 사네피크닉

내용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고민 공유
간접지원과정에 대한 참여 소감 및 의견 나눔



“저는 항상 음악가로서만 살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선의 폭을 좀 넓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딱 음악 하나만 보고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그렇지 않아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었어요”

“올해 이 사업에 4년 차 참여하고 있는 저는 간접지원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연주 활동만 하다가 작은 클래식 소공연장을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공연장 오픈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예술교류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연주회를 열어야 되니까 좀 고민도 많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간접지원과정을 다 참여는 못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싶었어요. 그런 예술가들을 위해서 뉴스레터나 세심한 가이드로 세부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들어요. 체험·탐방 프로그램이었던 ‘복많투어’ 같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진이나 짧은 영상으로나마 공

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 예술가와 만나서 같이 하고 싶어도 저 혼자 한계가 있잖아요.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이디어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예술가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이거 해볼까 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간접지원과정을 거의 다 신청해서 참여했어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했지만 다양한 실험을 하는 예술가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도 소중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리프레시 됐을 때 다시 한 번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접지원과정에서의 그런 터치들이 자극이 많이 된 건 확실해요”

“최근 몇년 사이에 연습 공간이자 스튜디오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임새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작지만 나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이 좀 건강하게 자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예술인들끼리 느슨하게나마 계속 연결과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에 사는 예술가들은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예술가들끼리 할까 할까 말만 하고 진짜 하자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음 지역에 자리를 잡고 예술을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살다 보니까 제 삶의 소소한 행복들이 예술 위에 점점 놓이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가치보다 삶의 행복이 좀 더 위에 자리잡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예술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없을지라도 내 삶과 연계해서 꾸준하고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걸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원사업 안에서 예술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 하지만 예술인은 지원사업과 별개로 일상적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묻고 나누는 자리도 종종 필요하다”

과정 나눔회

일시 2024. 12. 4. (1회)

장소 천안시 신불당 아트센터

내용 예술인별 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간접지원과정이
활동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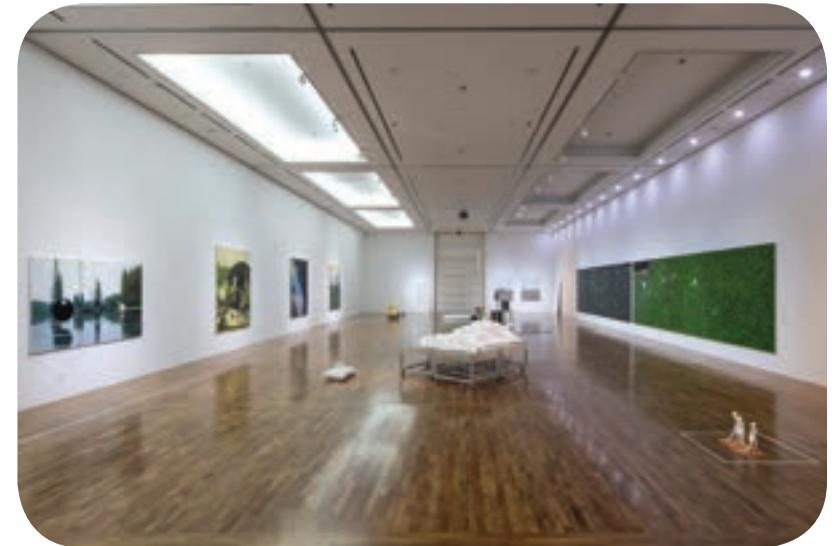


“과정을 나누는 순간에도 예술가가 떠올리는 것은 작은 움직임, 반응, 소리, 기억 등이다. 거대한 담론이나 사회적 주제보다 앞서서 그날의 어떤 순간을 오래 기억하자”

4. 참여예술인 사업 소개

창작이 채우는 시간

예술가	김동형
프로젝트명	멀리 바라봄에 대한 표현과 연구
장르 또는 형식	입체, 영상, 리서치
프로젝트 기간	2023. 11. 1. ~ 현재
기획의도	멀리 바라본다. 삶의 과정을 이와 빗대어 표현 하기도 하고, 젊은 작가인 나에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의 조언처럼 해주시던 이 말은, 나는 언제나 '잘 알지도 못 하면서' 무슨 말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거렸다. 현재 어딘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멀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작가로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를 바라볼 여러 관객 또 한 이 '멀리 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내용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는 '멀리 바라본다' 라는 추상적 표현에 대한 탐구이다. 철학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멀리 바라봄'은 익숙한 듯하지만,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의미는 언제나 알쏭달쏭한 느낌을 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각언어로서의 표현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 속에서 표현되는 '멀리 바라봄'을 조사하고 이를 아우를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중심은 시지프스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행위는 무한의 굴레로 현대인의 삶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참여 소감	여러 지원 사업과 다르게 충남 다원 예술 지원은 결과보단 과정 중심의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닌, 그 순간순간에 몰두하여 여러 실험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측의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느껴지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	허윤성
프로젝트명	아트인하비, 어린이들의 취미
장르 또는 형식	작품 전시
프로젝트 기간	2024. 10. 20. ~ 11. 30.
기획의도	키덜트는 어린이를 뜻하는 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adult를 합성한 단어로 레고브릭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모여,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전시를 하면서, 충남 천안에 위치한 아트인하비 갤러리에서 지역에 같은 취미로 모인 어른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내용	혼자만의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오래전 커뮤니티로 모여 전시회를 기획하고 함께 하는 행사가 있는 반면 충남 지역에는 생소하고, 막상 만들어도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충남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갤러리를 같은 취미로 모인 어른들이 모여 전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아 천안지역 어른들이 그동안 수집하거나 만든 작품과 허윤성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로 함께 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참여 소감 장난감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장르로 성장시키기 위해 2016년부터 충남에서 홀로 작업을 시작했었고, 혼자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번 실험실을 통해 느낀 점은 다른 예술 분야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천안에 위치한 갤러리를 거점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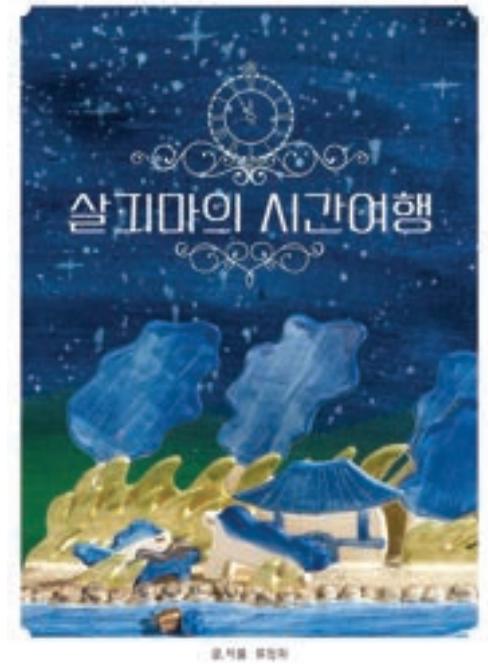


예술가	이영선
프로젝트명	선 넘는 드로잉
장르 또는 형식	다원창작예술 공연 '전시' 출간
프로젝트 기간	2024. 4. 1. ~ 11. 30.
기획의도	마음에 차오르는 영감을 점, 선, 색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로운 드로잉을 통해 실험하고 표현함으로써 드로잉의 기존 개념, 매체와 표현 범위, 작품발표 및 관람의 방식, 작가적 역량을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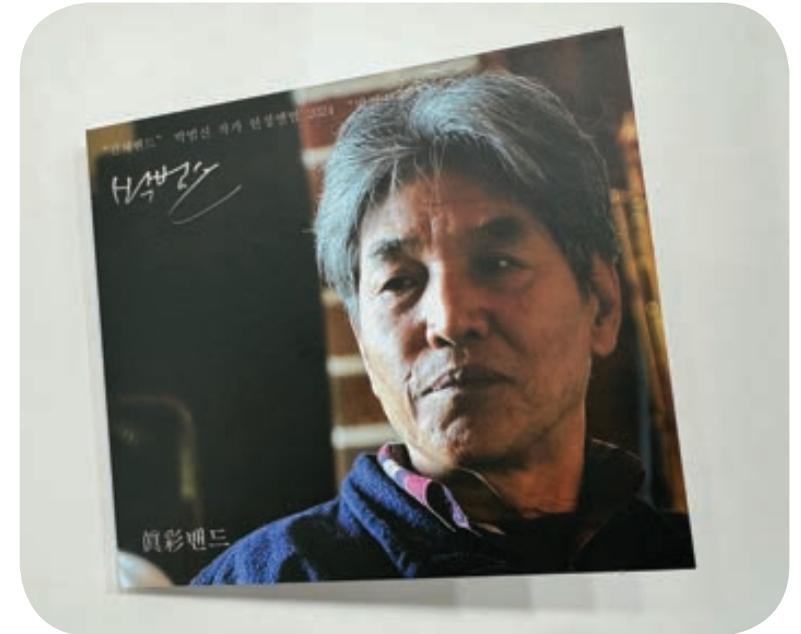
내용	'드로잉'과 '선'의 다중적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브제, 재료, 기법(시각예술, 안무, 공간 가변 조형 설치 등의 통합)을 사용하는 창작드로잉 작품을 제작하여 그 과정과 결과의 기록물(글/사진/영상)을 별도의 웹 구축 및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참여 소감	통합창작 예술작업을 하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역량, 작품의 개성과 특성을 더 공고히 하게 되었고, 작업과 작품, 창작발표 방식에 대한 기존 관념을 벗어나 나만의 콘텐츠에 맞는 형식 혹은 작품이 놓이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	류정희
프로젝트명	살피馬의 시간여행
장르 또는 형식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 기간	2024. 4. 1. ~ 12. 31.
기획의도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 스토리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지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동화책을 제작. 도자기로 동화책의 주인공과 배경을 제작하여 동화책을 구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작업 추가.
내용	공주시 감영길에 있던 공주 감영과 감영에서 근무하던 관찰사 그리고 관찰사가 타고 다니던 말을 주인공으로 하여 도자기 작품을 제작하고 동화책으로 제작.
참여 소감	지역의 역사스토리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문 작가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서 스토리의 구성과 도자기 작업등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림이 아니라 도자기로 동화책을 구성하도록 하는데 있어 도자기 작업자로서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예술가	정진채
프로젝트명	문학을 노래한다 (박범신작가 헌정 앨범)
장르 또는 형식	다원예술 (문학과 음악의 융합으로 시노래음반 제작)
프로젝트 기간	2024. 1. 1. ~ 12. 31. (실제 기간 10년)
기획의도	문학작품 속의 문장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문장 속의 운율을 보다 음악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
내용	박범신 작가의 시와 소설 속의 문장 중에 13편을 노래로 작곡해서 음원으로 출시, 박범신 작가의 두 권의 시집과 평소 팬카페에 올리시던 여러 시들, 그리고 소설 “소금”, “주름”, “유리”, “은교” 등의 작품에서 문장들을 발췌하여 노래로 만들었다.
참여 소감	곡을 만들고 녹음하면서 박범신 작가의 문학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었고 문학과 음악을 같이 했을 때, 대중적인 시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로 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보다 대중적인 공간에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술가	김민성
프로젝트명	2024년 소리길을 찾아서
장르 또는 형식	음원
프로젝트 기간	2024. 2. 9. ~ 11. 29.
기획의도	국악의 명인들과 2023년 많은 시간을 보내며 고민하고 연구하며 산조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국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작품들에 대한 창조적인 다원예술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소리길을 찾아서 남도민요, 서도민요, 경기민요 등 다양하고 가치 있는 한국의 민요들을 재즈와 접목시켜 재해석하고 널리 해외에도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 꽤 많은 작업과 긴 시간들을 요구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 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내용	대한민국의 다양한 민요들을 서양의 악기로 재해석하여 연주하고 음원 발매를 통해 더욱 널리 알리며, 해외 공연을 통해 국악의 위대함을 전달할 계획이다. 남도민요 개고리타령을 굿거리 장단에 맞춰 고유한 뉘앙스와 라인들을 베이스와 기타로 재해석하고 재즈의 창조적인 라인들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와 느낌의 개고리타령을 들려준다.
참여 소감	한국 전통국악과 다양한 민요들은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완벽함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다원예술작업을 통해 도전하는 마음으로 편곡을 하고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서양악기로 국악을 연주하면서 한계점을 느끼기도 하였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산조나 민요를 새롭게 해석한 이런 작품을 캐나다, 콜롬비아에서 연주하면서 많은 가능성을 느끼고 더 많은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늘 애써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충남문화관광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술가	성유진
프로젝트명	일렉트로닉 국악 New K-House Music - PLUG
장르 또는 형식	EDM 국악 (예술 + 기술 + 복합장르)
프로젝트 기간	2024. 5. 1. ~ 11. 30.
기획의도	국악은 클럽음악에 낄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한국형 하우스뮤직을 만들고 싶었다. 단순한 장르 중심의 융복합을 떠나 작가는 내 주변 이웃들의 키워드를 스스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충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한다.
내용	전통 국악기인 '가야금'과 현대의 전자 사운드를 기반으로 일렉트로닉(EDM)음악에 가야금의 전통 어법을 함께 접목시켜 K-HOUSE MUSIC을 만들어 녹음, 유통한다. 또한 다양한 장르 융합을 기반으로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글(텍스트)과 그림이 함께 접목된 파티 형태의 공연을 진행하며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연을 제시한다.
참여 소감	이번 작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컸던 문제는 바로 음향이었습니다.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했을 때, 기본 사운드가 큰 편이어서, 가야금의 통 안에서 사운드가 돌면서 피드백이 반복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고, 그중 흡음판을 울림통의 크기에 맞춰 제작, 울림통에 부착하여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는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공연을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공연에 와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무등을 태우고 안고, 돌면서 신나게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 되어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공연을 했던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전시 일정이 끝나지 않아, 기존에 음악과 함께 녹아들게 하고자 했던 그림과 텍스트를 그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과 텍스트로 대체하면서, 음악과 전시의 콜라보가 한결 더 두텁게 쌓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텍스트를 목소리로 녹음, 지속적으로 연주 중간 중간에 노출시키면서 의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운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시도들과 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관객들과 더 자유롭고 열린 형태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가	황혁진
프로젝트명	마술극
장르 또는 형식	다원예술(마술)
프로젝트 기간	2024. 9. 2. ~ 11. 25. (공연일시 : 2024. 11. 22.)
기획의도	마술이 가지는 현상 위주의 공연과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떠한 사건이나 말과 동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장르 즉 연극을 접목하여 마술공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탈장르 형태의 공연을 기획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연극이 가지는 장점인 배우가 각본에 따라 말과 동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현상만 존재하는 마술에 녹아들면, 마술공연 작품에서 내 이야기 전달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객들이 작품을 쉽게 이해하고 공연을 보는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주류 형태의 마술공연이 연극적 요소들을 만나 좀 더 대중화된 공연예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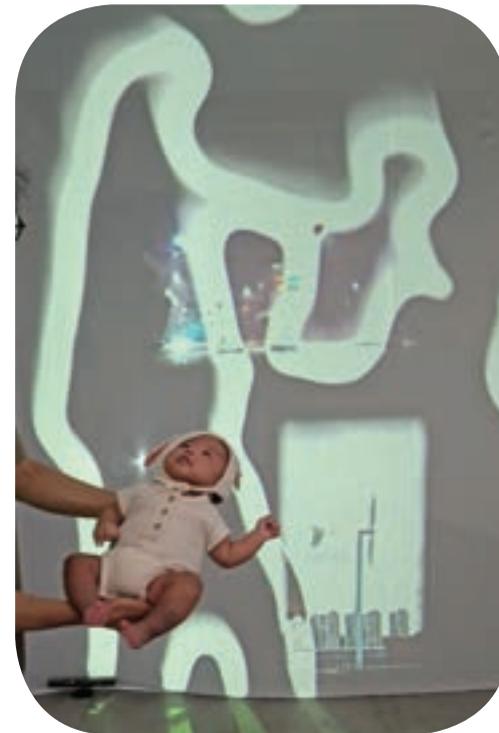
참여 소감	이번 사업을 참여하게 됨으로써, 마술 공연의 다양성 및 대중성을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했으며,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도 단순히 마술의 현상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스토리의 재미와 현상의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모습으로 더욱더 새롭게 기획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



예술가	작은광대우주(이강미)
프로젝트명	오직 한사람을 위한 'Only for you' 우주극장
장르 또는 형식	미니어처 시어터
프로젝트 기간	2024. 4. 1. ~ 12. 31.
기획의도	오직 한사람을 위한 미니어처시어터 공연을 통해 작은 공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Only for you' 찾아가는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객확장, 발굴에 포커싱 하고자 한다.
내용	<p>오직 한사람을 위한 공연이란 작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며 오직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공연 형식으로 유럽에서는 미니어처시어터라고 불리고 칠레에서는 람베람베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한 명의 공연자와 한 명의 관객이 오롯이 만나 교감하며 따뜻하게 위로받는 공연이다.</p> <p>우주극장에 놀러 오세요. 작은 상자 속 오직 당신을 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Only for you! Just for you!</p>
참여 소감	빈칸 실험실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작업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로 또 같이의 연대를 느끼며 서로 창작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미난 실험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술가	전우진
프로젝트명	일상의 쓸쓸함
장르 또는 형식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기간	2024. 9. 19. ~ 9. 24.
기획의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무언가를 수집하고 모아서 다원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작가의 일상 속 쓸쓸함을 들여다본 관객이 자신의 일상에서도 존재하는 무언가를 찾아가면 좋겠다.
내용	<일상의 쓸쓸함>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업이다. 관객은 떠다니는 오브제를 잡아 작가의 일상 속 쓸쓸함을 열어볼 수 있다. 함께 나오는 사운드는 연속성을 가지며 각자의 영상들이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준다. 작가에게 일상 속 쓸쓸함은 소중한 존재다. 관객이 들여다본 작가의 일상과 비교하여 나의 일상에는 어떤 쓸쓸함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길 바란다.
참여 소감	모든 전시가 그렇듯 이번에도 아쉬운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간접지원과정이 결과의 아쉬움을 많이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업은 좀 더 친화적이지만 도전적인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예술가	헤븐파르텟 (유재희)
프로젝트명	시니어를 위한 음악과 힐링
장르 또는 형식	음악
프로젝트 기간	2024. 10. 9. ~ 10. 9.
기획의도	충남지역의 고령화증가로 인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기회 제공을 위한 취지로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요양원, 주간돌봄센터에 연주자가 방문하여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특별히 치매 노인의 뇌와 정서 자극 효과 즐겨듣던 음악을 클래식 악기로 들으며 기억을 회상하고 기억력 강화 및 기억력 감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악의 힘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내용	직산 제일좋은 요양원, 케어링 주간보호센터, 가을동화주간보호센터 3곳의 노인돌봄 시설을 방문하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호른의 연주로 클래식 곡 외에도 어르신들이 평소 좋아하는 트로트와 민요 등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공연관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시니어 전문강사의 레크레이션과 함께하며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진행하였다.
참여 소감	지루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1시간 동안 즐겁게 공연을 즐겨주셨으며 아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신나는 노래는 일어서서 춤추는 등 관객과 함께하는 연주회가 되어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공연이 끝나고 어르신들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며 감정적으로도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술가	차준영
프로젝트명	거리의 악사들
장르 또는 형식	금관5중주
프로젝트 기간	2024. 6. 2.

기획의도 노숙자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소외된 그들만을 위한 음악 선물을 준비해 보았다. 당장 애한 끼니가 급급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음악감상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치일 수도 있다.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내용 약 4년 전인 코로나 시기 때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노숙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관계를 맺고 식사를 제공했던 만나 도시락팀과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해 보기로 했다. 노숙인들에게 만찬과 더불어 음악 만찬을 선물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사회적가치확산의 실천이 될 것이다.

참여 소감 앵콜을 연신 외쳤던 노숙인분들의 환한 표정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선, 행색, 사회적 위치, 환경 상관이 없이 음악이라는 희망의 나팔 소리로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안았던 음악회는 그들에게 있어 가슴속 만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술가	한지수
프로젝트명	Spring up
장르 또는 형식	사회적가치특화
프로젝트 기간	2024. 8. 31.
기획의도	각자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우울, 슬픔, 열등감, 좌절, 실패감 등은 스스로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로 시작된다. “나만..”이라는 위험한 생각은 자신과 남에 대한 오해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깊은 동굴에 갇히게 하며 이는 나아가 사회 안에 단절된 마음을 갖게 한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생각의 각도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는다.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주고 나아가 유연하고 둥근 마음으로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포용하며 배려하는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기대해 본다.
내용	이번 공연의 주제는 “우울의 퇴색, 희망의 무한”이다. 작품 사이 박수는 생략하며 공연 처음과 끝을 하나로 연결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신의 우울감, 불안감 등을 자가진단한 후 마음의 방에 앉아 직간접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함께 그리고 각자가 존중되는 시간, 예술가와 관객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모든 감정을 재해석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진짜 나를 바라보며 긍정적 영향들로 새롭게 피어나 묵었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참여 소감	좌석 배치, 연주자와 관객을 하나로, 곡 사이 박수 없는 것, 감상하며 그림 또는 글로 생각 표현(참여형) 등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 프로젝트여서 예술가들을 설득하는 일과 의도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등 모든 준비 과정은 외

롭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연 이후 참여한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울감이 있었는데 치유되는 시간이었다. 연주하러 왔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1회 공연으로 너무 아쉽다. 공짜라니 말도 안 된다. 이런 공연이라면 몇 만원이어도 보러 갈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공연이면 좋겠다” 등등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진솔한 피드백에 다시금 힘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좋은 공연으로 소외된 자들과 지쳐있는 이들에게 예술의 매개체를 통해 최고의 힐링을 주어 세상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예술가	최민영
프로젝트명	지구를 위한 노래
장르 또는 형식	공연
프로젝트 기간	2024. 5. 1. ~ 5. 31.
기획의도	한 가정의 부모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나는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소중한 아이들에게 물려 줄 세상을 음악과 함께 어떻게 전해 줄지 고민한다. 그러던 중 큰 아이와 '지구 끝의 온실'이란 책을 읽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음악으로 나누고 싶었다.
내용	북콘서트 형식의 음악회다. 2회 공연을 통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공동체와 도서관을 찾아갔다. '지구 끝의 온실' 책의 텍스트를 선정해 PPT에 키워드를 띄워 관객들과 공유하고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영감으로 선곡하여 연주하는 방식이다. 또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작가님을 모시고 관객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함으로써 참여형 공연도 시도했다.
참여 소감	사회적가치확산 사업 중 간접지원과정은 지원사업의 꽃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고립된 생활 속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은 창의적인 연주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잘 활용하여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공연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	남궁희재
프로젝트명	과거와 함께하는 이야기
장르 또는 형식	작가 작품 변화과정 공유 및 작품 공동제작
프로젝트 기간	2024. 10. 18.
기획의도	나는 자유를 무한한 자유, 제한된 자유, 연루된 자유의 세 단계로 나누어 시간 흐름에 따른 자유의 의미를 시각화한다. 그리고 이번 간접지원과정의 개별심화연구는 참여 예술인들과 함께 천안삼거리에 얽힌 설화 '능소와 박현수'를 구성하는 사건들의 조각들과 이야기 속 기다림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공유하고 작품을 공동제작하며 작품의 확장성을 모색한다.
내용	나는 관계를 통한 자유의 의미를 모색한다.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숙한 자유 즉 '연루된 자유'를 느낀다. 바닥에 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설정하고 참여 예술인들과 함께 이 안을 작은 네모들로 연결하는 작업은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예상치 못한 방향성이 서로 얽히며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참여 소감	자유를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관객과 공유하는 데 기존의 방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전달을 모색하던 중 개별 심화연구를 지원하는 빈칸 실험실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과 함께 소규모로 진행한 전시와 연계된 공동작품 만들기는 추상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관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이후의 전시 방향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술가	전선진
프로젝트명	놀러와요 문화의 숲, 더불어 함께
장르 또는 형식	공예 체험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간	2024. 8. 20. ~ 8. 26.
기획의도	지역 주민과 지역 공예 예술가들이 함께 공예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더불어 지역 공예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활용 천을 이용해 손바느질로 에코백 만들기 2. 목재를 이용하여 보관함 만들기와 폐목재를 활용한 나무반지 만들기 3. 식물화분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영상 편집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공예 예술가 도록을 만들기 위한 회의 진행
참여 소감	의외로 일반인들이 쉽게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정되고 지속적인 운영 공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으며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이고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쉽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술가	김수지
프로젝트명	클래식 마리아쥬
장르 또는 형식	클래식&재즈
프로젝트 기간	2024. 4. 20. ~ 10. 31.
기획의도	“클래식 마리아쥬”는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과 음악에 어울리는 음식을 결합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공연 후에는 관객과 연주자가 소통하며 예술적 교감을 나누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내용	“클래식 마리아쥬”는 4월 20일 김기경의 춘몽과 시간여행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신연아와 니콜라 세르지오의 제즈 나잇 콘서트로 마무리되었다. 각 공연 후, 관객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연주자가 읽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후기와 음악적 해석, 예술에 대해 궁금한 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공연 후기와 음악적 해석, 예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관객과 예술가 간의 깊은 예술적 교감을 형성하였으며, 에제르아트홀이라는 거점에 대한 애착과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참여 소감 하나의 거점에서 예술교류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관객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예술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과정의 끝에서 충남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게 될 문화적 풍요로움과 다양성이 기대됩니다.



예술가	후니 (이정훈)
프로젝트명	돌아갈래
장르 또는 형식	시각, 파티형
프로젝트 기간	6개월
기획의도	비워져있는 공간 흙으로 작업하는 작가의 워크샵 같이 만들어가는 파티 함께 만드는 삶의 의미부여하기
내용	흙 작업 작가 워크샵 관람 / 소통하기 / 작가 되어보기 / 참여자 분들이 음식을 가져와 나누기 / 삶을 나누기 / 의미 부여하기 / 다음을 기약하기(2025년 10월 다시 만나기)
참여 소감	공간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 다른 공간으로 변한다는 점, 그리고 참여한 작가, 시민들이 함께 한 시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경험했다.



예술가	성종택
프로젝트명	댄싱 홀리데이 @호미극장
장르 또는 형식	무용 네트워킹/워크숍
프로젝트 기간	2024. 7. 17. ~ 7. 19.
기획의도	지속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대안으로서 생태친화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예술활동을 제시한다. 생태친화적 움직임 네트워크는 예술가의 삶의 형태를 변화하고 그것이 작품으로 발전되어 인간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술과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여 '생태친화적 움직임'의 개념을 정립하고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간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무용 워크숍(무용가 밝녕쿨) - 아프리카 댄스 워크숍(무용가 엠마누엘 사누) - 제철채소 요리(꽃비원) - 즉흥잼
참여 소감	본 사업을 통해 우리 단체와 호미극장이 무엇을 지향해왔는지, 또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친화적 움직임의 지향점은 예술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번 '댄싱 홀리데이 @호미극장'은 참가자들과 강사들, 기획팀(몸,살 컬렉티브 단원들)이 모두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의무를 넘어서서, 사람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술가	이수지
프로젝트명	지금, 예술이 필요한 때 <예술 품앗이>
장르 또는 형식	예술교류(협력)
프로젝트 기간	2024. 4. 23. ~ 11. 20.
기획의도	육아와 예술을 병행하는 예술인들이 주를 이루어 현실적 한계 속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예술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간다. 또한 '예술 활동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실험을 하며 미래의 '육아를 담당하게 될 예술인'들이 이후에도 길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내용	학기당 10회기로 오전에는 두 예술인이 만나 삶과 예술을 나누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음악과 문학을 활용한 예술 놀이를 진행하였다. 2학기에는 4회기 동안 <들락날락 함께 나누는 예술 한 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변 엄마들과 아이들을 초청해 '작은 공유회'를 가졌다. 이에 다른 엄마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예술 품앗이>를 소개할 기록물(인스타툰) 제작, 우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곡을 제작하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결과물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소소하고 의미 있는 실험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다.
참여 소감	함께한 동화 작가 오채(박미혜) 작가님과 예술뿐 아니라 일상도 나누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예술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과 깊이 교류하며 협업하는 과정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빈칸 실험실'을 통해 때때로 '나에게 필요한 빈칸'을 찾아볼 수 있었고 예술교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

우리는 끝도 없이 많은 선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 의해 그어진 선도 있지만, 나 스스로 만들어낸 선도 있다. 중도를 위한 선이 있기도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선도 있다.

무수한 선들 앞에서 나는 늘 고민한다.

해도 되는가, 하면 안되는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는가.

이 질문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에게는 늘 국악의 당위성과 가야금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전통의 방식을 벗어나면 안된다. 국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등등의 당위성. 가야금으로 할 수 있는 음악, 또는 할 수 없는 음악 등등..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산수 문제가 아닌 이상 삶과 예술에서 이러한 당위성과 한계에 정답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그리하여, 이제 나는 해도 되는가, 하면 안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에서 “해볼까”로 모두 전환해보기로 했다.

이번 Plug의 작업은 전자에 가졌던 질문을 문제로 삼아, 후자의 “해볼까”로 풀어보았다.

클럽은 꼭 젊은 친구들만 가야 하는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문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가야금은 클럽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가. 또는 같이 연주하면 안되는 것인가. 서울이 아닌 이런 작은 도시에서는 실험적 공연들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발상의 전환과 실현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 지원했던 다원예술지원은 예산이 고정되어 있어서 지원신청을 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작업을 모두 할 수 있었고, 다원예술의 특성상 많은 것들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들을 열어놓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간접지원과정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나, 공연예술가 특성상 마음만큼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운 점들이 많았다.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 나에게 제일 특별했

던 건 최선영 PM님과과의 개인 인터뷰 시간이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개인의 성향과 그간의 작업들, 고민, 계획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PM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내가 참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인터뷰 후 정리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 이번에 크게 3가지로 시도했던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적 결합 :

EDM + 가야금 전통 선율 + Multi Effector 사운드

2. 음악 + Text + 전시 작품의 결합

3. 아티스트와 브랜드 컴퍼니의 결합 :

PLUG Music + 다이얼 팩토리 + 바틀샵 혼돈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음악 녹음 및 음원 유통을 할 수 있었고, 공주 원도심에서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Music Party가 이루어졌다. 이날 많은 인원은 아니었으나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파티를 즐기며 모두가 즐겁게 춤추며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소규모 브랜드 컴퍼니가 함께 하면서 소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생적

인 또 하나의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위의 과정에서 라이브 음악 연주를 하면서 문제를 많이 겪었던 가야금의 피드백 문제도 여러 자문을 통해, 그리고 사운드 실험을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보다 아주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이번 작업은 스스로에게는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서 용기가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었다.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리서치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작업보다 선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1.



2.



3.

사진 설명

1. PLUG의 음원<PLUG> 발매 - 벅스 뮤직
2. MUSIC PARTY PLUG 공연 포스터
3. 공연 실황 장면

엄마라는 이름의 예술가

12월인 오늘도 기온이 널뛰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없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여야만 하고 아직 얇은 옷을 정리 못하고 옷장에 옷들이 이것저것 놓여있다. 두 딸이 있는 엄마로서 기온차가 심한 날은 조금 걱정이다.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아이들의 건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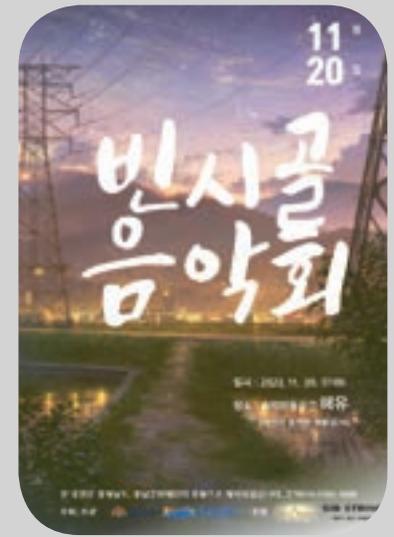
연주자, 예술가 최민영이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돌보며 챙겨줘야 하는 책임이 크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환경과 부모의 섬세한 관심 속에서 잘 키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사실 무의미한 욕심일 뿐 그저 부모의 사랑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건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일보다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 나눈 것들,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가족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엄마로서 예술가로서 활

동도 하려고 한다.

2024년 올 한 해도 가족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보냈으며 그들과 함께였기에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눌 수 있었다.

여러 음악 활동을 하던 중에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 사업 중 사회적가치특화 사업은 나의 음악적 방향성을 정리 해 주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았다. 성과 중심의 지원 사업과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 모든 음악회 앞에 나는 사실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엄마, 교육자, 연주자 등 여러 가지의 모습을 살아내야 하는 나에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끝없이 연습하고 보여줘야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길은 참으로 고되고 수양이 필요한 일인데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었다.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나는 공동체에 속했다기보다 음악가로만 살아야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결핍을 음악으로 채워나가고 있던 중 사회적가치특화 사업 내 간접지원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 이 사업은 결과물이 우선이기보다는 기획자, 실연자의 예술 행위 과정

을 지원해 주고 예술가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
 어 사업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쓸 수 있었다. 그
 래서 나는 합리적인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
 다. 그러다 보니 가정과 지역 내에서 음악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소외된 이
 웃, 죽어가는 환경, 그래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는 가족과 이
 웃을 위해 건강한 에너지의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굳은 믿
 음이 생겨났다. 그 믿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 여러 개의 공
 동체와 협업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음악회뿐만이 아닌
 우리 음악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 해 보게 되
 었고 현재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즐거우면 춤을 추고, 춤을 추면 즐겁다!

우리의 삶 속에 춤은 어느 정도가 있을까?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호흡이 가빠온다. 다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다. 감정이 호흡을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호흡이 감정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은 약간 ‘싸이코’ 선생님이셨다. 실기시험에서 점수는 숫자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통, 동, 작, 똥’이라는 네 단계로 매겨졌다. 벌을 주는 대신 학생들의 머리를 깨무셨고, 수업 시간에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고 책상 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다. 잘 그린 그림보다는 기발한 그림에 더 점수를 주셨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그 미술 시간이 마냥 재미있는 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선생님께 배운 게 많다. 그중 하나는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grape’라는 단어를 보고 ‘포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포도 맛이 나고 침이 고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춤이 절로 난다’리는 말이 있다. 즐겁거나 기쁜 일이 있으

면 나도 모르게 춤이 나온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옛말’이 된 것 같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의 우리는 즐겁거나 기뻐도 더 이상 춤을 추지 않는다. 나는 이 점이 너무 안타깝다. 올해 우리 극장에서 진행한 ‘댄싱 홀리데이@호미극장’에서 강사로 참여한 엠마 형(본명 엠마누엘 사누)은 이런 말을 간혹 한다. ‘한국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춤추는 것을 창피해 한다. 하지만 본인의 나라(부르키나 파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춤을 잘 추는 사람도 못 추는 사람도 자기가 즐거우면 춤을 춘다.’ 나는 현대무용수다. 무용수는 춤추는 것이 직업인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나도 한국 사람인지라 남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창피하다.

아껴야 잘 산다!!!

...고 배웠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춤을 아낀다. 하지만 비단 춤만이 아니다. 웃음, 사랑, 칭찬, 용서, 양보, 그리고 화 등등... 솔직한 감정의 표현을 감추고 아낀다. 감정만은 아끼지 말고 솔직하게 팡팡 쓴다면 조금은 즐거운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내가 몸 담고 있는 단체인 ‘몸,살 컬렉티브’의 ‘생태친화적 움직임’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 이를 더 구체화하고 나누기 위해 댄싱 홀리데이가 만들어졌다. 올 여름, 댄싱 홀리데이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틀 동

안 함께 먹고 자면서 계속 춤만 쳤다. 진짜 몸살 나게 쳤다. 그들 대부분은 무용과 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몸치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 그들은 평소에 춤을 춰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모두 미친 듯이 춤을 쳤고 그것은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춤의 힘을 느꼈다.

‘즐거우면 춤이 절로 난다.’

포도를 입에 넣고 맛을 느끼고 나서 포도를 인식할 수도 있지만 포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또한 그 반대도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춤을 추면 즐겁고 행복해 질 것이다!



2024 충남다원예술·사회적가치특화·예술교류 간접지원과정
빈칸 실험실 기록집

발행처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발행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서흥식

발행일 2024년 12월 20일

제작 기획 최선영

디자인 스튜디오네버다이

인쇄 에이프린트

사업 총괄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김진희

사업 기획 및 운영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김진하, 노경희, 박채린, 김혜민, 한민규

PM 최선영

